특허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8.(목) 09:00 배포 2023. 5. 18.(목) 08:30

특허청, 아시아 특허청장들과 지식재산의 미래 논의

-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기간 중 고위급 토의 참석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사회로 혁신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정책 토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23.5.16.~5.20.)의 부대행사로 지난 5월 17일(수)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 및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토의에 참여해 아시아 특허청장*들과 「아시아에서 지식재산(IP)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특허청장, 중국 특허청 차장

【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

국제상표협회(INTA)에서 매년 개최하는 상표분야 최대 규모의 민간 회의로, 세계 각국에서 약 1만 명의 산·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표분야 최신 논점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적 교류망(네트워크)을 형성하는 행사

이번 토의는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 특허청의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과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특허청장, 중국 특허청 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아시아에서 지식재산(IP)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참석자 명단]

사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패널	한국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중국
	다렌 탕 사무총장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포운사바쓰 청장	레나 리 청장	판딧 운낫 청장	바바 로웰 청장	루 펑치 차장

특허청 구영민 국장은 한국의 혁신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최근 변화상을 소개하면서, 지식재산 제도가 혁신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의 특허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허청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의 혁신환경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 특허청은 아시아 지역의 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다른 아시아 특허청들은 물론, 국제상표협회(INTA) 등 민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1, '22년 2년 연속 WIPO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지역 1위

※ 붙임: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패널토의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대순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감유림 (042-481-5936)

붙임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패널토의 사진**

<내용>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현지 시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및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패널 토의에 참여해 아시아 특허청장들과 「아시아에서 지식재산(IP)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설명>

사진 :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WIPO 패널토의에서 한국의 혁신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싱가포르 특허청의 레나 리 청장, 필리핀 특허청의 바바로웰 청장, 인도 특허청의 판딧 운낫 청장, WIPO의 다렌 탕 사무총장, 한국 특허청의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라오스 특허청의 포운사바쓰 청장, 중국 특허청의 루 펑치 차장)